

시론

‘무엇이 되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를 생각하라



오 주 섭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좀처럼 오지 않는 정치의 봄

목하(目下) 정치의 계절이다. 30여 일 후면 국정(國政)을 책임지는 사람들을 뽑는 선거가 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만물이 생동하는 봄이 오는 게 자연의 이치이건만 대한민국의 정치 계절은 좀처럼 봄이 올 것 같지 않다.

올바른 가치관과 정치철학은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

정치인에게 올바른 가치관(價値觀·sense of value)과 정치철학(政治哲學·political philosophy)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 가치관과 정치철학은 한순간에 형성되지 않는다. 오랜 시간 책을 읽고, 보고, 듣고, 배우고, 토론하고, 사람들과 함께 교류하고, 멘토를 통해 조언을 들으며 생겨난다. 운동선수들 중에 타고난 감각으로 발군(拔群)의 실력을 발휘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 타고난 감각과 함께 제대로 된 목표를 세우고 끊임없이 노력했기 때문에 정상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따른 국민들의 고통 기증과 세계 경제의 불안, 갈수록 복잡다단(複雜多端)해지는 사회에서 정치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흔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으로 구분하지만

실은 정치가 이 모든 것을 규정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정치가 경제, 사회, 문화 등 국민 생활 전반을 규정하는 만큼 정치인들이 어떤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정치에 임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대통령을 잘못 뽑으면 나라도 망하고, 자치단체장을 잘못 뽑으면 4년을 허송세월하고, 국회의원들을 잘못 뽑으면 정쟁으로 날 새는 줄 몰라 국민들의 삶은 고달플 수밖에 없다.

투표는 정치를 좋게 바꾸는 유권자들의 절대 권리

요즘 대한민국 정치에 대화와 타협이 사라지고, 오직 진영 간 증오와 혐오, 비아냥이 넘쳐난다. 거대 기득권 양당은 당내에서조차 조급의 차이점도 인정하지 않고, 다수파가 소수파를 찍어내기에 비뚤다. 이러하니 국민들 사이에서도 생각이 다르면 적대시하는 등 혐오의 감정이 점점 커지고 있고, 미국, 유럽 등은 극우 보수강경파가 점점 득세하고 있다. 꼭 2차 세계대전 직전의 독일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선거를 통해 집권한 히틀러와 나치당은 정적 제거와 권력 강화를 위해 대 국민 선전전에 몰두했다. 그 중심에 나치 정권의 선전 장관인 파울 요제프 괴벨스가 있었다. 궤변과 요설에 능한 대중 선동의 달인이었던 그는 일일 일은 집단 광기에 휩싸였고,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다. “우리는 국민들에게 강요하지 않았어 그들이 우리에게 위임했지. 그리고 그들은 지금 댓가를 치르고 있는거야.” 투표는 정치를 좋게 바꿀 수 있는 유권자들의 절대 권리다. 선전·선동에 현혹돼 투표권을 잘못 행사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피

벨스는 유권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들린다.

정치인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

19세기 미국 정치개혁가이자 성직자인 제임스 프리먼 클라크는 “정치인(politician)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가는(statesman)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는 명언을 남겼다. 민주주의가 굳건하게 자리 잡은 나라들은 훌륭한 정치가가 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훌륭한 정치가가 많을수록 괴벨스와 같은 프로파간다(propaganda)에 아주 능한 선동가가 나타나더라도 정치가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무엇이 되느냐 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5·18 광주민중항쟁과 관련, 내란음모죄를 뒤집어쓰고 사형을 선고 받았다. 청구고소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던 1981년 1월29일, 자식들에게 보낸 육중 서신에서 “인생의 목표를 무엇이 되느냐 하는 것보다 어떻게 값있게 사느냐에 뒤야 한다. 자기가 값있게 살려고 애 쓴 일생이었다면 비록 운이 없어서 그 목적인 바를 이루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일생은 결코 실패도 불행도 아니다. 값 있고 행복한 일생이었다고 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4·10 총선은 우리 지역과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중차대한 선거다. 후보자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씀을 명심해 ‘정치의 목표를 무엇이 되느냐 보다 어떻게 값있게 정치를 할 것이냐’에 무게를 두고 호남을 대표할 정치가로 성장할 목표를 갖기를 바란다.

社說

전남 외국인 계절근로자 처우 개선 실질효과 날까

전남지역에 올해 상반기 예정된 농업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5천818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2천 274명)보다 2배 늘었다. 심화되는 고령화 현상에서 기인한 농어촌 인력 부족에 따라 수요가 증가해 있다. 하지만 브로커의 임금 착취 및 폭력 행사, 열악한 주거 환경 등으로 인권 침해 논란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 전남도가 지난 1월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처우 개선책을 마련했다.

대정부 건의 내용은 국가 차원의 전담기관 지정, 출입국 관리사무소와 연계한 관리, 인권침해 점검 통합 시스템 구축, 고용허가제(E-9) 도입 등이다. 전남도 자체적으로는 기숙사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남, 담양, 영암, 무안 4개소를 하반기 준공하고 폐교 등 10곳의 유휴시설을 리모델링, 기숙사로 활용하는 사업도 지원한다. 언어소통 도우미도 시군별로 배치하며 부상이나 질병 등 산재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 치료비 부담을 덜어준다. 아울러 성실 근로를 유도하고 농작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인센티브를 시행한다. 고용주 교육도 강화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일손이 모자라 받을 동동 구르는 농어가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보호가 절실한 상황이다. 인력선발과 송출 과정에서 깊숙이 개입한 브로커의 횡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일부 경찰의 수사도 진행되는 중이다. 동남아 등 현지에서 낮부끄러운 실상이 조명되는 등 국제 문제로 떠올랐다. 전남도의 개선 방안이 실제 효과를 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해서 정기적이고 심층적인 실태 조사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인권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 주도 전담기관 지정, 깨끗하고 안전한 숙소 제공, 언어 도우미 지원 등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 상반기 예정된 계절근로자가 4월 농번기에 맞춰 본격 입국할 예정이다. 지역 공동체 일원으로 자부심을 갖고 생활하도록 뜻이 포용해야 한다. 단순 고용이 아니라 파트너 관계로 ‘안전한 정착’을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손잡고 근로여건 향상에 더 전력해야 하겠다.

열차 부정승차 광주도 증가세, 시민 의식 절실하다

KTX·SRT 등 열차 이용객 가운데 상당수가 요금을 내지 않고 타는 등 부정승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발권 시스템으로 탑승 전 확인 절차가 생략된 허점을 파고든 암체중들이 늘고 있다. 운임료의 최대 30배까지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있으나 예방에 역부족이다. 시민 의식 제고에 기대야 하는 현실이다.

과 규약을 지키는 이용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불법, 부도덕한 행태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경기 불황에 따른 경제난 등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몰라도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코레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광주로 오는 고속철 등에서 적발된 부정승차자는 모두 1만6천888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4천96명, 2022년 5천699명, 2023년 7천337명으로 매년 1천명 넘게 증가하는 추세다. 광주에서만 해마다 5천명 이상이며 전국적으로도 상황이 심각하다. 최근 5년 25만5천원, 부가임금 징수액만 245억5천만원에 달한다.

코레일측은 출발 후 철도 승무원이 자리를 오가며 부정승차자가 있는지 살피고 있다. 기동검표반도 운영하고 있으나 쉽사리 적발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종이 티켓보다 모바일 탑승권이 우세한데, 어른들은 자녀들이 대신해 구매해 준 경우가 대부분이라 확인 요청도 쉽지 않다. 또 자신의 좌석이 아니어도 빈 곳이 있으면 앉기도 하고, 표를 보여 달라고 하면 짜증을 내는 사례까지 다양하다.

다른 대중교통과 비교해서도 많은 편이다. 승차권 없이 타거나 다른 열차의 승차권 소지, 할인상품 부적합 사용까지 모두 부정승차에 해당된다. 특히 명절 기간 관행화되다시피 하고 있다고 한다. 개인적으로 양심에 반하는 행위다. 법

인력·재정적 부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규제와 단속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근절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200년 시행된 철도사업법 제10조 과태료 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도 올바른 열차 이용 문화 만들기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문화난장

여전히 어머니가 그림다



류 미 숙

화가

영원할 것만 같았다. 그러나 그것은 내 착각이었다. 언제나 내 곁에 있을 줄 알았던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홀연히 떠나버렸다. 이미 떠난 엄마를 붙들고 한도 끝도 없이 망연자실해 있었다. 고통의 나날이 겹겹이 쌓여갔다. 그게 벌써 9년 전 일이다.

다. 남들이 보기엔 현 그릇이나 쓰레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지만 어머니의 그릇을 함부로 버릴 수 없었다. 쌓아둔 그릇을 정리하다 말고 몇날 몇일을 응크리고 앉아 쳐다보았다. 그 그릇 속에 어머니의 이야기가 배어 있었기 때문이다. 도저히 버릴 수 없었다. 그 안에 담긴 어머니의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다가 나기로 했다. 표현은 바로 그 그릇에다 하기로 했다. 그렇게 해서 ‘엄마의 밥상’이 탄생했다.

시를 감당했다. 정말 열심히 살았다. 그리고 작가가 호평을 받았다. 너무 신났다. 이 모든 게 어머니가 내게 주신 선물이다. 살아서도 모든 것을 주신 어머니가 돌아가서서도 또 내 작업의 근원이 되어주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있다. 참으로 고마운 일이다.

생전에 어머니는 설 참이 없었다. 애오라지 얹어 일만 했다. 일 구덕에 파묻혀 지냈다. 생을 놓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서 어머니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아려온다. 저 밑바다에서부터 차오르는 슬픔을 주체하지 못한다. 자식과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분이시다. 갑자기 세상을 떠났기에 남은 가족들은 미처 마음의 준비를 하지 못했다. 그 그리움을 모아 작업에 몰입했다. 내가 수년간 해온 ‘엄마의 밥상’이 그것이다. 그리움을 뿌리로 해 작업의 넉줄을 짜며 어머니와 만났다. 너무 기쁜 나날이었다.

접시에다 그림을 그렸다. 그러나 그건 바람이고 희망이었을 뿐 쉽지 않았다. 그릇에 그림을 그리려니 참으로 난감했다. 물감이 그릇에 먹히지도 않았고 그림을 그리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다. 사포로 수없이 문질러 표면을 거칠하게 한 뒤에야 물감이 스며들었다. 요령이 없어서 힘으로 땀뻘 문질렀다. 나중에 스킴을 이용해서 처음보다는 수월하게 했지만 초기엔 고난도의 과정을 어렵사리 거쳐야만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끊임없는 연구를 거쳐 그림이 그릇 위에 얹힐 수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의 흔적이 그릇에 옮겨졌다. 어머니가 수십년간 쓰던 그릇에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생각에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 즐거움과 환희의 시간이었다.

이제까지는 어머니의 이야기였다. 어머니를 보듬고 그릇에다 캔버스에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재현했다. 어머니의 무한한 사랑과 행복, 추억, 꿈들을 접시 위에 간접히 표현해 왔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나, 류미숙에 대한 이야기를 써내려가 볼 생각이다. 지금까지 해왔던 작업과는 사뭇 다른 이야기가 전개될 거 같다. 해서 고민이다. 아직은 어머니 이야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않았다. 아무래도 어머니의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가 동시에 전개될 거 같다. 현재는 지속적으로 고민의 곁돌을 거두고 있다. 작품 주제에 대한 고민, 표현에 대한 생각, 재료 선택의 판단에 시간이 아주 많이 소비될 것 같다. 그림에도 나아가야 한다. 한 곳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작하기로 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 작업을 하면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게 정답 아닌가 싶다.

어머니는 50여년 동안 식당을 운영했다. 어머니의 물건을 정리하며 식당에서 사용하던 그릇과 부엌살림들을 앞에 놓고 한없이 울었

그렇다고 어머니를 아예 떠나보는 것은 아니다. 어머니의 곡에다 나의 이야기를 덧붙일 거다. 어머니는 영원히 나의 그리움으로 남아있기에. 어머니와 나의 이야기가 펼쳐질 날이 머지않았다.

독자투고

신종 ‘AI피싱 사기’ 알고 보면 예방 가능하다



최근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전화 뿐만 아니라 영상으로도 속이는 신종 ‘AI 피싱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금해 버리는 등 큰 피해 발생이 쉬운 구조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조작된 딥페이크 영상에 속아 수억원을 송금하는 피해가 발생하는 등 세계적으로 AI 피싱 사기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또한, 평소 가족 간 암호를 정해 급하게 송금을 요구한다면 한번 더 확인해야 하며, 생일 같은 흔한 암호는 피하고 가족만이 알 수 있는 특정 질문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AI 피싱 사기는 음성 목소리는 물론, 얼굴 표정까지 감쪽같이 따라하기 때문에 가족도 감쪽 속는다.

관련 피해 예방법으로는 AI 피싱을 하려면 실제 목소리나 얼굴 영상이 필요한데 2~3초 영상만 있어도 억양과 감정까지 표현할 수 있어 SNS 등에 음성이 포함된 영상을 올릴 땐 피싱에 악용될 가능성을 염두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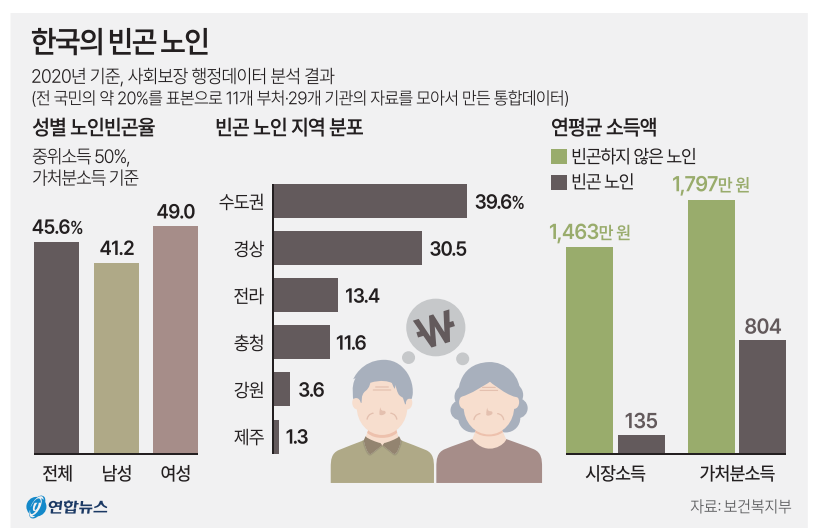
다만, 무엇보다 신종 피싱 사기 예방 법을 사전에 숙지해 스스로 주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안기오·장흥경찰서 경무계장)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픽 뉴스

노인 절반은 ‘가난’...연금 합쳐도 가처분소득 연 804만원뿐

우리나라 노인 중 절반 가까이 가난한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 노인이 중년 여성과 수도권 거주자 비율이 더 높았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8일 제1차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로 분석한 한국 빈곤 노인의 특성’에 대해 논의한다고 7일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빈곤 노인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성별 분포(가처분소득 기준)는 여성 60.3%, 남성 39.7%인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 노인의 지역별 분포에서는 수도권 거주자가 39.6%로 제일 많았다. 이어 경상권 거주자가 전체의 30.5%, 전라권 거주자가 13.4%였다.

이들의 가처분소득 수준은 빈곤하지 않은 노인보다 1천만원가량 낮았다. 비(非)빈곤 노인이 1천797만원인데 비해 빈곤 노인은 804만원이었다.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빈곤율도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60~69세의 빈곤율이 35.0%로 가장 낮았고 나이에 따라 점점 높아져 80세 이상에서는 56.5%가 빈곤 노인이었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0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 V 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입부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규칙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10(가)10(가)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